

2009 10

햇볕

2·28 제9권 3호 통권35호

시론 2·28정신의 미래지향적 계승

특집 제8차 민주포럼 - 2·28민주운동 활성화 방안

특별기고 반세기 만에 2·28을 회고한다 - 이목(李木) 선생

추모특집 이태우(부산대 명예교수) 이사 별세



사단
법인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www.228.or.kr

| 한국문화정보학과 Dr. Michael C. E. Finch

세계의 석학들과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CREATE YOUR FUTURE

| KAC 학장 Dr. John W. Eichenseher

| World WIDE

- 세계 43개국 214개 대학 및 기관과 국제교류

| World BEST

- 2009년 21명 외국인 석학 교수 영입, 총 외국인 교수 102명
- 외국인 정부초청 대학원 장학생 지정기관
- 세계각지 몽골, 타지키스탄, 베트남 등 한국어센터 설립

| 교육학과 Dr. Kimberly C. Wrightson

| World FIRST

- 총 500여억원 특성화 사업 지원 (학생취업 / 인재양성 / 연구 부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 월드베스트 연구지원
- 메카트로닉스인력양성
- 청년사업단 지원센터
- 해외취업 연수과정

| 법학부 Dr. Christopher J. Clug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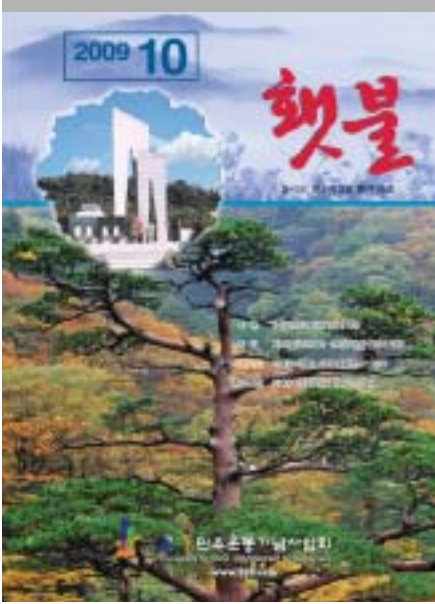
| World SCHOLAR

- 비사스칼라 장학제도
-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도서비 360만원
- 개인 전담교수/본교 대학원 진학 등록금
- 국외 연수 및 인턴십 등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GLOBAL LEADERSHIP KEIMYUNG UNIVERSITY



▶ 표지 사진-가을의 선비송
작가: 古松 張 國 鉉

제9권 3호 통권 35호 가을
발행인 / 안인옥
편집인 / 김약수
인쇄 / 2009년 10월 20일
발행 / 2009년 10월 20일
편집위원 / 김상규, 이방현, 장영향, 김광주,
박명철, 김동환, 김종인
발행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700-803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길 6(남산1동 843번지)
(문매서림 4층)
Tel. (053)257-0228, Fax. (053)254-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homepage : http://www.228.or.kr

인쇄처 / 신문사(053)474-9000

햇볕

2009년 10월 제9권 3호 통권 35호 가을

- 시론** 04 2·28정신의 미래지향적 계승
/ 이효수 영남대학교 총장
- 2·28 특집** 07 제8차 민주포럼 - 2·28민주운동 활성화 방안
- 특별기고** 18 반세기 만에 2·28을 회고한다 - 이목(李木) 선생
- 추모특집** 23 이대우 이사 별세
24 故李大雨 大兄 靈前에
/ 안인옥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 26 유토피아는 어디 있는가?
/ 박건삼 방송인, 시인
- 29 故 이대우 님을 추모하면서
/ 양성호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 36 2·28 대구학생의거를 회상하며...
/ 윤종홍 당시 대구고 2학년

- 문예광장** 40 석승령을 바라보며
/ 이은재 수필가, 도서출판 그루 대표
- 44 달빛 / 공명구 시인(대구 경신고등학교 교사)
- 자유기고** 46 2·28과의 만남 / 임아현 영남대학교 3학년
- 2·28 일지** 46 햇볕지 35호 편집회의
2·28제50주년사업 각분과위원장 회의
47 2·28 일지

※ 게재된 글은 본 사업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원고를 다음호에 게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입회안내**
 - *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을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 정신의 계승발전과 우리 나라 21세기 민주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 2·28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영구히 전산입력 보장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이상)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 본 법인에 납부하는 회비 및 협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1-54호)

2·28정신의 미래지향적 계승



이 효 수
영남대학교 총장

우리는 2·28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신을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2·28은 자유당 정권이 대선패배를 우려한 나머지, 1960년 2월 28일로 예정된 야당의 부통령후보 장면박사의 대구지역 선거유세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공립 고등학교에 강제 등교 명령을 내리면서 발단되었다.

2·28은 행위 자체로 보면 일요일 강제 등교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었으며, 뚜렷한 투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 운동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행위 중심적 평가는 2·28정신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몰이해로 인하여 2·28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당시 대구시의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이

은 집단적 항거를 하였고, ‘학생인권 옹호’, ‘민주주의 수호와 학원 내 정치세력 침투 배제’를 외치면서, 반월당, 중앙통, 도청, 시청에 이르는 가두데모를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등교거부가 아니라, 분명히 부정에 대한 저항운동이었고 민주화 운동이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고, 3·15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운동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2·28을 회고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화할 필요가 있다. 독재 권력으로부터의 민주화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2·28정신을 좁게 해석한다면, 2·28은 역사적 사실에만 머물게 되고 회고적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책무성을 동반한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따라서 2·28정신은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화 운동 즉 성숙된 민주시민의식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될 필요가 있다.

대구가 2·28정신을 계승하는 또 다른 길은 시대정신에 투철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2·28정신의 가치는 시대정신의 선각과 행동화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민주사회의 건설이었다고 볼 수 있다. 2·28정신의 높은 가치는 이처럼 시대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화하였다는 점이다.

당시의 시대정신이 민주화이었다면,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지식기반사회의 건설과 녹색혁신이다. 당시 부패한 독재정권을 그대로 두고 역사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듯이, 오늘날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역시 역사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녹색혁신에 실패하면 미래 인류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다.

대구는 10년 넘는 세월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은 자긍심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가 유치되고 국가공단이 지정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이 또한 지역의 지식기반 인프라가 경쟁우위를 갖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지식기반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지식과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이다. 2·28이 고등학생 중심의 학생운동이었다면, 이 시대

에는 지식기반사회 건설을 위한 대학혁신과 모든 시민의 학습운동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지역지식경쟁력을 높이고 지식기반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폐쇄성과 배타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마켓에 부응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학습의 생활화를 통하여 지역지식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건설은 시대정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산·학·민·관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행동화가 필요하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시대정신인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녹색혁신도 범시민적인 실천적 행동이 요구된다. 인류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으며 범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가 지구 곳곳에 엄청난 자연 재앙을 불러오면서 인류 미래의 생존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기술혁신뿐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행동은 인류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위협은 생존의 위협일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구현과 녹색혁신을 통한 인간 존엄의 실현은 2·28정신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

제8차 민주포럼 - 2·28민주운동 활성화 방안

2·28민주정신 간단(間斷)없이 승화시키자

본회에서는 2009년 9월 25일 10시 30분 대구은행본점 3층 회의실에서 제8차 민주포럼을 개최하고 다가오는 2010년 제50주년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한 각분과위원회별 계획서를 발표하고 사업내용 의견교환과 토론회를 갖었다. 역대의장, 이사,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인욱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적 사건은 그 당시 관련된 지역과 인물들이 부각되며, 세세연년 국민들에게 그 사건이 되새겨지고, 사회발전과정에서 국가적·민족적 차원의 사건으로 승화되어 역사성과 민족성과 지역성을 함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당위적이지만 50년을 맞는 2·28대구학생의거는 그 당시 고등학생들의 전유물인양 방치(放置)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타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소외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말하고 2·28학생민주의거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정상 민주화운동의 효시임에 그 숭고한 정신을 간단(間斷)없이 승화시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로 판단된다면서 오늘 본회가 50주년을 대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역사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완전무결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고견을 주기 바란다 고 했다. 이날 포럼 사회는 본회 최용호 고문이 진행했는데 50주년 기념식을 계획한 이방현 총무분과위원장을 비롯한 12개 분과위원장이 계획서를 발표하였는데 뉴컴파니 이상원대표는 당시 2·28시위현장 퍼포먼스와 기념공연 등을 제안하였고 매일신문 석민기자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올바른 2·28기념관건립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은 2·28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卍



2·28민주운동 제50주년사업

1 2·28민주운동 제50주년 기념식(안)

1. 사업명 : 2·28전야제, 민주운동 제50주년 기념식 및 시위퍼레이드
2. 사업 목적 : 2·28민주운동 50주년을 맞아 2·28정신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이 시대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고자 함.
3. 추진 방향 : • 2·28정신 계승 • 2·28민주운동 자긍심 고취 • 2·28역사의식 제고
4. 세부 계획

사업내용	추진일정	내용	비고
2·28전야제	2010. 2. 27.(토) 오후4시~ -2·28기념공원 특설무대-	* 2·28기념공원50주년기념 전야제 * 뉴컴퍼니 용역	무대시설 영상제작 락밴드 가수초청 등
50주년 기념식	2010. 2. 28.(일) 11:00~11:40	* 대구시민회관 (2·28기념관건립공식별도)	기념식장준비 초청가수 가로등배너 영상홍보, 만장기, 피켓 어깨띠, 기념타올
기념식직후 2·28기념퍼레이드 (도보행진)	2010. 2. 28.(일) 11:40~12:10	* 시내퍼레이드 (시민회관~2·28기념공원) * 기념식 참석자 전원, 시민 2,000명~ * 식후행사(2·28기념공원) -프로그램 참조-	퍼레이드 차량장식 플랜카드 현수막 어깨띠 깃발 등

5. 준비 내용

- 시스템(무대, 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레이저, 중계 발전차)
- 출연진(사회자, 초청가수, 비보이, 밴드, 댄스팀, 모듬북, 남성중창단 외)
- 영상 제작(행사 영상 및 각계인사 인터뷰 영상 제작)
- 영광의길 제작(바닥 카펫 설치, 깃발 제작 외)
- 식장영상, 현수막설치, 음향설비, 가로등배너 제작
- 불꽃 ABR 제작
- 공식행사(공식기념행사경비)
- 퍼레이드(차량장식, 플랜카드 제작, 깃발 제작 외)
- 인건비(연출, 음악감독, 도우미, 진행요원)

- 홍보물(대형현수막, 거리현수막, 리플렛, 기념타올)
- 기타(통신장비, 진행물품, 행사보험 외)
- 진행비(문서, 통신, 교통 외)

2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50년 발행 계획

1. 사업명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50년 발간
2. 취지 : 2·28민주운동 제50주년을 기념하여 2·28기념사업회 50년의 활동상과 업적을 편찬하여 2·28민주운동의 의의와 역사적 사실을 남기고자 함.
3. 추진 방향 : • 2·28정신 계승 • 2·28민주운동 자긍심 고취 • 2·28역사의식 제고
4. 세부 계획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내 용	비 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50년 발간 (2010년 1월)	간행사, 격려사, 축사 제1장 2·28 학생 의거의 배경 제2장 2·28 학생 의거의 전개 과정 1. 학생 활동(조직)과 참여 학교 2. 2·28 학생의거 전개 과정 3. 그 날의 언론 보도 제3장 2·28 학생 의거의 영향과 의의 1. 2·28 학생의거와 4·19 2. 2·28 학생의거와 한국의 민주화 운동 제4장 2·28 학생 의거에 대한 재조명 1. 2·28 학생의거 후 50년 2. 2·28 학생의거에 대한 재조명 제5장 2·28 학생 의거에 대한 기억과 회고 1. 참여 학생들의 개인적 회고담 제6장 2·28 학생 의거와 기념사업 1. 기념공원 및 시설 2. 기념 행사 제7장 2·28 학생 의거의 기록과 자료 1. 사진과 영상 자료 2. 선언문 등 문헌 자료 제8장 연구 현황 1. 자료집 간행 성과 2. 단행본과 논문 연구 성과 맺음말 : 2·28 학생 의거의 정신과 민주화전통의 계승 방안, 대구·경북권 주요인사 특별기고, 2·28특집좌담, 역사자료, 문화탐방 등.	*정사, 사업실적 구분 편찬 *집필, 편찬위 구성

5. 준비 내용

- 집필, 편찬 경비
 - 1) 취재비
 - 2) 자료조사비
 - 3) 원고료
 - 4) 기타 경비
- 인쇄, 제본비, 기타경비

3 제50주년기념 2·28심포지움계획

1. 사업명 : 2·28제50주년기념 심포지움 개최
2. 추진 방침 : • 2·28정신 계승 • 2·28민주운동 자긍심 고취 • 2·28역사의식 제고
3. 세부 계획(전체)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내 용	비 고
2·28제50주년기념 심포지움 - 2·28시대정신과 국가의 선진화 -	1. 개 회 : 사회(사무총장) 2. 개회사 : 의장 3. 축 사 : 시장(공동의장) 4. 축 사 : ※ 기조연설: 2·28 시대정신과 국가의 선진화 제1주제: 2·28민주정신과 정치선진화 발표 : 토론 : 1, 2, 3, 제2주제: 2·28민주정신과 사회선진화 발표 : 토론 : 1, 2, 3, 제3주제: 2·28학생정신과 청년문화의 선진화 발표 : 토론 : 1, 2, 3, 종합토론: 전원참가 (발표자+토론자 +기타) 사회 : 학술분과위원장 리셉션 :	외국, 중앙, 지역인사 초청

4. 준비 내용
 - 1) 원고료 2) 기조연설자 초빙(중앙) 및 토론자
 - 3) 회의장사용료(식대) 4) 회의장준비, 진행비

4 2·28조형물 건립 및 2·28길(路), 2·28역(驛) 명칭 제정 추진

1. 사업명 : 2·28기념조형물건립, 2·28로 및 2·28역 명칭 제정 추진
2. 취지 : 1961년 명덕네거리에 세워졌던 2·28기념탑을 상기하고 이미지를 되찾기 위하여 지하철 3호선이 지나는 명덕네거리 환승역 명칭을 '2·28驛' 으로 제정하고 2·28기념관건립 예정지 인접도로를 '2·28길' 로 제정함과 동시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내(건립부지 직경5m)에 2·28조형물을 건립함으로써 2·28이미지와 2·28정신을 계승하는 데 기여함.
3. 추진 방향 : • 2·28정신 계승 • 2·28민주운동 자긍심 고취 • 시민정서 함양

4. 세부 계획

사업내용	추진일정	내용	비고
2·28로 및 2·28역 명칭 제정 추진	2009년 중	* 2·28길제정 (예: '남문3길' 을 '2·28길' 로) * 2·28역 제정 (지하철명덕네거리환승역명칭)	* 대구시토지정보과 (803-4982) 중구청 종합민원과 (661-3062) * 대구지하철공사
2·28기념 조형물 건립	2009~2010	* 2·28기념중앙공원 남쪽광장 기존설계위치(직경5m)에 2·28조형물 건립	* 조형물, 설계 공모 * 관계기관 등 예산확보



5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 발행 계획

1. 사업명 :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 발간

- 취지 : 초·중고의 교과과정 중 2·28민주운동 교육내용이 미흡하여 보충교재를 발행하여 2·28민주운동 역사 인식을 보다 더 충실히 하고자 함.
- 내용 : 2·28민주운동이 4·19민주혁명과 우리나라 민주화에 출발점이란 내용이 교육적 지침서로 활용토록 함.
- 발간일 : 2010년 1월 중.
- 체제 : 보충(장학자료)100쪽, DVD, 15,000부.
- 배포 : 대구 초·중·고 교당 100부, 경북 초·중·고 교당 5부,
전국 시·도교육청당 200부, 유관기관, 도서관, 보관용 등 2,965부.

2. 추진 방침 : • 2·28정신 계승 • 2·28민주운동 자긍심 고취 • 2·28역사의식 제고

3. 세부 내용

(향토사교육연구회)

목차(장)	목차(절)	쪽수	집필자	비 고
머리말	표지	1	안인욱 (2·28기념 사업회장)	* 판형 - 4X6배판 * 편집 원칙 • '한글2007' 기준 • 글자 크기 11 • 장평90, 자간-2 • 글자체(한컴바탕) • 줄간격 180
	머리말	1		
	차례	1		
I. 배경	1. 역사적 배경	(1) 이승만 정부의 성립과 독재 정치	이주호 (원화여고 교사)	
		(2) 제4대 정부통령 선거		
	2. 지역적 배경	(1) 일제하 대구의 학생 독립 운동		
		(2) 대구시민의 정치적 성향		
II. 전개과정	1. 제4대 정·부통령 선거	15	윤용식 (대구여고 교사)	
	2. 일요일 등교 지시			
	3. 운동의 계획			
	4. 학교별 전개 과정	15	김경희 (고산중 교사)	
	5. 당국의 대응			
	6. 전국적인 확산			
III. 4·19혁명으로의 계승	1. 2·28민주운동 이후의 정치	15	손봉희 (성지중 교사)	
	2. 4·19혁명의 전개과정			
	3. 4·19혁명의 결과 및 영향			
IV. 역사적 의의	1. '명칭' 논란	10	유경아 (경덕여고 교사)	
	2. 이념적 성격			
	3. 주체의 조직성			
	4. 투쟁의 지속성			
V. 현대적 계승	1. 기념사업회의 결성 및 활동	7	이길영 (대구외고 교사)	
	2. 기념물의 조성			
VI. 참고자료	사진(화보)	25	김학수 (학남고 교사)	
	자료(신문기사, 역사자료)			
	수업안 및 학생 활동 결과물			
	참고문헌			
CD (또는 DVD)	PPT슬라이드, 2·28찬가, 자료 사진(화보), 동영상 등	*	장진환 (대륜고 교사)	
계		100	* 감수 : 주웅영 (대구교대교수), 장주호, 최용호, 홍종흠, 안인욱, 백진호	

6 2·28회원 배가운동 추진

1. 사업명 : 2·28회원 10만명 가입추진

현재 2·28회원 3만4천여 명에서 10만명으로 늘려 2·28의 위상을 높여 나갈.

2. 추진 방침 : • 2·28정신 계승 • 2·28민주운동 자금심 고취 • 시·도민 적극 참여 유도

3. 세부 계획

사업내용	추진일정	내용	비고
2·28회원배가운동	2009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기관단체 (대구시, 시교육청, 대구은행 등 각급기관단체) * 2단계: 고교재학생, 및 개인 * 3단계: 8개교 회원가입 (개별적, 학교동창회별 회장단모임) * 4단계: 8개교외사립학교 * 임원, 회원들의 가족 적극적 가입, 유관기관 구성원 가입 독려, 회원가입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사업회, 회원들의무관심, 소극적자세 탈피 *각 학교별 추진위원회를 조직 정례회화



7 2·28기념관 건립계획

1. 사업명 : 2·28기념관건립
2. 추진 방침 : 국비, 민주화운동(2·28) 법률개정과 병행
3. 세부 계획

사업 내용	추진 내용	비 고
2·28기념관건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비예산반영(년말) 2. 2·28법률개정(정기국회) 3. 장소, 위치, 건립규모 4. 도서관 기능성 회관 5. 운영 방안 6. 기공식 : 2010. 2. 28. 기념식 전후 	*국비조달분과 위원회, 법률개정분과 위원회

8 제10회 2·28글짓기 공모 시상식(운문)

- 일시: 2010년 4~6월 중
- 세부 내용 : 별도

9 2·28홍보지(2·28웹툰) 발행

- 발행일 : 2010년 4회(분기별)
- 내용 : 4×6배판 52P 3,500부

2·28의 제50주년이 갖는 의의와 발전 방향

석 민

매일신문 기자

50년 전 대구에서 일어난 2·28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마산 3·15의거’, ‘부산민주항쟁’, ‘광주 5·18’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른 지역 민주화 운동의 경우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국비가 지원되어 이미 기념회관이나 문화관이 지어졌지만, 대구 2·28 민주화 운동의 경우 아직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2·28 민주화 운동이 결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과 역사 발전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적지 않음에도 이처럼 홀대(?)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2·28의 도시 ‘대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2·28정신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로까지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대구는 조선왕조 400년 동안 경상감영이 위치하면서 영남의 행정, 교육, 문화 등 중심 도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특성은 1950년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으며, 1960~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섬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거점 도시로서 그 명성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민주화 운동인 2·28이 대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당시 대구시민(청소년·학생 포함)의 의식 수준이 선진적이었으며 전국 최고이었다는 것이 깔려 있다. (대구 역시 서울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중심도시였다) 2·28은 단지 대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구가 ‘낳았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1980년 대 정체를 거쳐,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접어든 1990년 대 이후 대구는 급격하게 그 위상이 쇠퇴해 버렸다. ‘1인당 GRDP 16년째 꼴찌’라는 말은 대구 경

제의 현 주소를 말해 주는 언어가 되었고, 지역민들로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또 누군가가 대구를 폄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구꼴통 도시’라는 말은 대구의 또 다른 상징어가 되어 버렸다. 이 같은 대구의 위상 하락과 쇠퇴의 와중에 ‘2·2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또한 절하됐고, 시민적 자긍심도 함께 하락했다.

‘2·2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아직까지 제대로 살아 시민 속에서 숨 쉬고 있다면, ‘나날이 쇠락하는 도시’, ‘수구꼴통 도시’라는 오명을 대구가 결코 뒤집어 쓰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대구시민 스스로가 대구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한 ‘2·28민주화운동’은 과거 속에 박제된 이야기로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28민주화운동’이 과거 속, 역사 속 이야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0년은 짧지 않은 세월이다. 많은 것들이 세월 속에 부식되어 사라진다. 지난해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구국채보상 100주년 기념식에 갔더니 모두 어르신뿐이더라”고 했더니, “광주민주항쟁 기념식만 하더라도 노인(= 어르신) 잔치로 전락한지 오래됐는데, 100주년 기념식에 어르신만 모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시대정신’이 세월을 이기고 새로운 세대에게 의미 있게 전승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2·28민주화운동의 의의에 대해서는 3가지 접근법이 가능할 것 같다. 먼저 2·2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세대들의 경험과 관점, 시각에서 볼 수 있다. 그 당시의 각종 자료를 모으고, 관리, 보관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아직 그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만큼 그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정리해 두는 것도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된다. 그 다음은 전문가적인 접근법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2·28의 의의와 정신 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갖는 2·28의 의의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보는 2·28민주화운동에 대한 시각’이다. 2·2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케케묵은 옛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청소년들에게 옛날의 관점에서 주입식으로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옛날의 청소년과 오늘날의 청소년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만이 2·28정신을 자료실이나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 숨 쉬게 하는 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2·28 제50주년 주요특별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사업은 2·28기념관 건립이다. 아무리 2·28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기념관이다. 특히 기념사업회에서 기념관을 단순한 자료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아주 바람직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일반 도서관처럼 청소년과 시민들이 책을 읽고 모일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기념관의 부지를 명덕초등학교 내로 한 것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가급적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기념관을 짓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일부러 2·28 정신을 배우고자 기념관을 찾아가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아예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곳이나 인근에 기념관을 설립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2·28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법률적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장 좋은 위치는 2·28 기념공원 내 또는 인근지역이다. 2·28기념공원과 2·28기념관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개념상 다소 혼란스럽다.

50주년 기념식과 전야제, 심포지엄, 교육용 교재발행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를 위한 행사’나, ‘그들만의 잔치’ 또는 ‘고루한 옛이야기나 적어 놓은 재미없는 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2·28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기획과 내용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28글짓기 공모전을 단순히 글짓기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자료로서 활용해 2·28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리는 길을 찾는 데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

“결국은 터질 것이 터졌구나!”
- 이목(李木) 선생 -

“오냐. 우리들은 비겁하나
너희들은 용감해라!”
못난 스승과 용감한 제자는
서로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본 내용은 1961년 2월 28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이목(李木) 선생께서 옥중에서 펴낸 “붉은 담 안에서 전한 사연” 책 중에서 우리교육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전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반세기 만에 2·28을 회고한다

1960년 2월 28일에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등교 명령이 내려졌다. 나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학교에 출근하였다. 이른 초봄의 날씨는 맑고 선명하여 아침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사대부고(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는 왜정 때 대구사범학교로 세워진 학교로, 중후한 붉은 벽돌 건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학교에는 정문인 북문과 서문이 있었으나 내가 등교하는 길에서는 서문이 가까운 편이었다. 서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가면 운동장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야 했다. 출입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공을 차면서 놀고 있는 평화스러운 모습이였다.

그런데 교문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그들의 웃고 있는 표정과 시선에서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애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들이 나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의중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는 뚜벅뚜벅 걸어 3층 본관에 자리 잡고 있던 교무실로 향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시내로 통하는 서문 쪽 도로에서 요란스럽게 달리는 학생들의 발자국 소리, 무언가 외치는 소리, 수많은 학생들이 시내를 향하여 달리는 모습을 보고 또 들을 수 있었다. 사대부고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소위 ‘역사적인 2·28 학생시위’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정치적 변혁을 가져왔던 ‘4·19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도화선에 불을 댕긴 것이다.

이에 따라 사대부고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 학교에서는 상부지시를 받았는지 학교의 자체 결정인지 알 수 없었으나 학생들에게 일제히 교실에 들어갈 것을 명령했다. 나는 직감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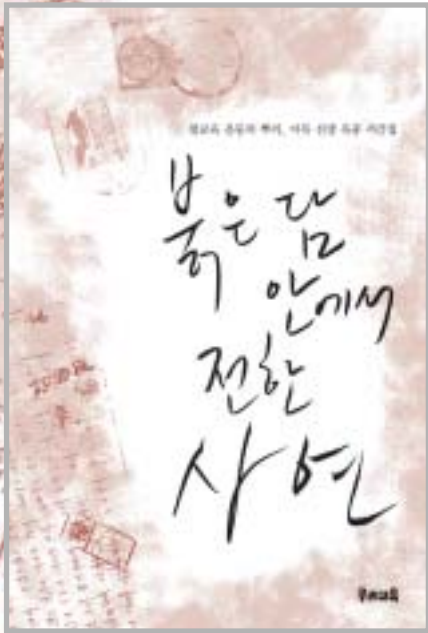
나는 교무실에서 화장실을 가는 중간 지점에서 우연히 3학년으로 진급할 이행우라는

학생과 마주쳤다. 그는 몹시 흥분한 모양이었다. 이 군은 불쑥 “선생님. 날 좀 봅시다.” 하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나는 태연하게 “이 군! 나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라고 답했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어서 인기척이 뜸한 곳에서 마주 섰다.

이보다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태평양전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자 우리 한반도는 연합군 승리에 힘입어 해방정국을 맞이하였다. 극열했던 좌우의 대립, 많은 민족 지도자의 정치적 모살이라는 비극적인 과정을 겪어 이승만은 남쪽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북쪽은 북쪽대로 소련군의 비호 하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그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건국의 기초를 닦아 삼권분립의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정치체제나 법제상으로는 엄연한 민주공화국이에요, 또한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놓았으나 허울뿐이었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실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억압과 탄압으로만 지탱될 수 있는 경찰국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입헌민주국가에서 가장 민주적 절차인 선거라는 것도 허울일 뿐 투개표 간에 온갖 부정한 수단을 저지르면서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부가 야당을 협박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었다.



모든 공무원이 집권당의 선거에 동원되었고,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원들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부정선거운동 부정투표 부정개표에 동원되는 형편이었다.

이 당시 나는 서울상과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가 우연히 후배를 도운 것이 인연이 되어 두 곳에서 중학교 교감직을 수행했다. 그 가운데 제3대 대통령선거를 선산 해평에서 겪은 것은 내 인생 대역전의 계기가 되었다. ‘교단에 서는 나의 인권조차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변민하던 나는 불원간 교직을 그만두고 사법고시를 준비해 남은 평생을 변호사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있었다.

1956년 영일 기계중학교로 전근 발령이 났다. 가족들은 대구에 남겨 두고, 나 홀로 대구 중앙동에 있는 책방에서 사법고시 준비에 필요한 법률서적을 잔뜩 구입해 산골짜기 학교에 단신으로 부임했다. 나는 학교 숙직실에서 기거하면서 틈나는 대로 법률서적을 들고 살았다. 약 10개월 동안 3시간 이상은 자지 아니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자니 건강에 무리가 왔고, 수험정보를 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근무지를 대구로 옮겨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대구에 나와 이리저리 문의한 결과 마침 사대부고에서 실과 담당교사를 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결정은 아주 쉽게 났다. 경북사대부고로 옮긴 것은 1957년 5월이었다.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한 지 2년이 넘고 있었고, 1960년 7월경 있을 시험에 원서를 접수해 수험표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민심은 독재 부패정권으로부터 떠난 지 오래였고,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 역시 독재정권의 온갖 횡포에 넋더리를 치고 있을 때였다.

약간 으스스한 복도에서 행우 군과 나는 마주 서 있었다. 나를 응시하고 있는 군의 눈빛은 나를 원망하는 듯한 눈초리였다고 기억된다. 행우 군은 두다리에 잔뜩 힘을 주면서 왜 우리들을 말리냐고 따져 물었다.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왜 만류하느냐는 힐책이었다.

“수업시간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정의와 민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을 왜 말리니까!”

행우 군의 내면은 용트림 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들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정의를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용감하게 싸워라!’ 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전진을 방해하다니!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불똥이 튀는 듯한 눈빛으로 스승인 나를 책망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나도 모르게 행우 군을 껴안은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겨우 한마디 나온 소리가 이것이었다.

“오냐. 우리들은 비겁하나 너희들은 용감해라!”

못난 스승과 용감한 제자는 서로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대구에서 2·28 학생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사대부고 학생회장은 나와 동향이었던 최윤희(현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군이었다. 학생시위가 있기 며칠 전부터 대구 시내 인문고등학교의 대표들은 은밀히 대규모 시위를 도모하고 있었다. 그날은 야당 후보였던 장면 박사의 수석천변 유세가 예정된날이었다. 당국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일요등교를 명령했고, 학생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2월 28일 10시에 일제히 봉기한다는

비밀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었다. 후일 밝혀진 내막이다.

이 가운데서도 독재정권의 부정선거는 계속 이어져 역사적으로도 커다란 오명을 남긴 3·15 부정선거로 이어졌다. 이는 마산의 부정선거 항의시위, 김주열 군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서울 대학가에서의 시위로 번져 4·19혁명이라는 큰 불기둥으로 끝을 맺었다.

4·19혁명에 자극을 받은 우리 교사들의 울분은 하나의 뜻으로 모아졌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 '교원노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하여 전국으로 번져 나갔다. 나는 학생들이 이룩한 4·19민주혁명의 성과를 지키는 데 내 한 몸을 바치기로 결심한 후, 손에 쥐고 있던 사법고시 수험표를 찢어 버렸다. 나는 내게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로부터 더없이 중요한 것을 배운 것이다.

그리하여 백만학도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이제 우리들이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전국 교원 동지에게 고함>이라는 격문을 작성하고 젊음과 청춘을 다하여 교원노동조합운동에 헌신했던 것이다. 卍

* 뒤에 알게 되었지만, 우진, 안병국, 이행우 군은 늙은 스승을 이승에 남겨 놓고 하늘나라로 가 버렸다고 한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붉은 담 안에서 전한 사연》, 이목 지음, 우리교육, p134~138



이대우(부산대 명예교수) 이사 별세

百萬學徒여 피가 있거던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치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 할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릴 학도요, 조국을 괴뢰가 짓밟으려 하면 조국의 수호신으로 가버릴 학도이다.

이 민족애의 조국애의 피가 끓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 주려는가?

우리는 끝까지 이번 처사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을때 까지 싸우련다.

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1960년 2월 28일 당시 경북고등학교 학생부위원장이었던 이대우 학생이 교정에서 낭독한 결의문의 일부분이다. 대구의 학생들이 자유당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일제히 봉기 하던날, 이대우 군은 급우들과 스크램을 짜고 거리로 튀어나갔다. 이것이 우리나라 4·19혁명을 완수한 민주운동의 출발점이자 효시였다. 지난 2·28제49주년기념식에서 KBS와 인터뷰한 것(사진)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병과 투병생활을 해 왔었다. 이 교수는 안인욱 2·28의장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의 슬픔 속에 2009년 9월 1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묘지에 안장됐다. 卍

민주열사 故 이대우 동지 영결식

故 李大雨 大兄 靈前에

안 인 욱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백로절을 맞아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마지막 성숙(成熟)을 위해 작열하는 햇볕의 향연을 즐기고, 만산(滿山)의 초목들이 오색영롱한 비단수를 놓는 신추(新秋)가절에 뜻밖에 접한 비보(悲報)에 세인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목 놓아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애재(嗚呼哀哉).

대우(大雨) 대형(大兄)께서 건강이 쾌유(快癒)하였다는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를 접했습니다. 부산 토성동 부산대학병원 입원중인 대형을 병문안 갔을 때, 대형께서 보여주신 강한 투병의지와 사모님의 정성어린 간병에 천지신명도 감동하여 기적이 있으리라고 믿고, 대구행 KTX에 몸을 의지하였습니다.

대형께서는 고등학생으로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구의 몇몇 고등학교 간부와 지우(知友)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2·28대구 고등학생 의거를 성사시켜 대한민국 헌정사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 결과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져 4월 26일에 자유당 정권을 종식시켰습니다.

당시 자그만 체구에 경북고 학생회 부회장의 책무성과 대구고 학생회장 손진홍, 부속고 학생회 부회장 최용호 및 지인들과의 약속 때문에 2월 28일 교정 조례대에서 당당한 자세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학생들을 데모 대열로 몰아넣었던 그 사자후(獅子吼)는 학생들의 심금을 울렸고 5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호통재(嗚呼通哉).

대형께서 대학생 생활, 졸업 후 생활 특히, 대학교수로 4·19혁명 세력과의 교류, 2·28학생의거 위상 문제 등에 보여주신 관심과 탁식(卓識) 등은 세인과 지인 그리고 후배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지금은 유명(幽明)을 달리하고 야속스레 미소를 머금은 영정만이 지인들을 만나고도 말 한마디 없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무엇이 그렇고, 무엇을 구하려고 홀연히 피안으로 떠나가셨나요.

인명은 재천이라 하지만 대형께서 항상 사랑하던 가족과 제자들과 정다운 동창·지인들을 두고 떠났기에 당신의 영전에 국화를 헌화하며 차안(此岸)에서의 마지막 인사로 흐르는 통한(痛恨)의 눈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머리 숙여 절을 올립니다. 당신께서 눈물로 비문(碑文)을 바치며 마지막 인연(人緣)을 다하고 극락왕세토록 빌어 주었던 故 獨峯 孫晉洪 大兄도 애도(哀悼)의 예(禮)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움으로만 만날 수 있는 대형!

대형!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춘삼월 호시절 춘화가 만발한 봄날에 만날까요? 신록의 싱그러움이 자연을 풍성하게 하는 초여름날의 뭉게구름으로 만나려 오시렵니까? 단풍과 오곡으로 풍성한 가을에, 아니면 삼라만상이 은빛옷을 갈아입고 향연을 베풀 때나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호애재(嗚呼哀哉).

녋두리, 애절한 부르짖음과 애원, 향 연기에 아른거리는 모습,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 등이 가슴을 애고, 후약을 기약할 수 없는 인간 세계가 한없이 원만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사와 인연을 끊으시고, 마음속의 모든 것을 훌훌 벗어 이곳에 두시고 극락 왕생하여 피안에서 영생하소서!

바라옵건대 2·28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의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회원과 함께 근배 서원(誓願)합니다. 卍

유토피아는 어디 있는가?

- 이대우 선배를 추억하며 -



박 건 삼

방송인, 시인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은 잘 모른다 해도 우리는 대충 인간의 행복이 가장 아름답게 보장되는 그런 세계, ‘이상적인 곳’을 가리킨다고 짐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상에 과연 그런 ‘이상향’ 낙원이 존재할 수 있을까? 물론 유토피아는 실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나 한번쯤은 적어도 그런 이상향을 꿈꾸고 살았을 것이고 나는 가끔 어느 낯선 여행지에서 순간적으로 ‘아 여기가 바로 유토피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에 의해 묘사된 상상의 섬일 뿐이다. 그리스어의 ‘아니다(ou)’와 ‘장소(topos)’를 합성해서 만든 것으로 ‘아무 곳에도 없는(nowhere)’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유토피아는 어딘 가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한 때 ‘유토피즘(utopism)’의 신봉자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가 가을이 무르익기도 전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 9월13일 오전 11시 쯤 나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불암산 쪽으로 산행을 하고 있었다. 그 때 대학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대우 교수의 부음이었다. 그 때 나는 “아, 사람은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탄식과 함께 그의 모습이 영상처럼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쳤다.

내가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아침이었다. 그날 오후 대구 수성 천변에서는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박사와 박순천 여사의 유세가 예정되어 있었다. 당국은 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장에 갈 수 없도록 일요일임에도 예정에도 없던 시험을 치르겠다고 강제로 등교시킨 것이다. 그 날 연단에 올라 이른바 ‘2·28 선언문’을 카랑 카랑한 음성으로 낭독하던 2학년생인 바로 이대우 선배였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968년 2월, 내가 제대하고 복학생으로 캠퍼스에 돌아오니 바로 그 선배가 대학 후배로 같은 과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참으로 묘한 인연이었다. 그로부터 대학생활은 물론 사회에서도 지근거리에서 서로 만났고 문학과 사상과 ‘시국’을 함께 논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내가 방송장으로 서울에서, 그가 대학교수로 부산으로 떠남에 따라 우리는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서울에 들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만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미워졌다. 아니 분노가 치밀었다. 86년이던가? 총선이 한창이던 때 우리는 그를 지원하려 모금운동을 했고 작지만 성금을 모아 차에 싣고 부산으로 갔다. 비록 작고 초라한 선거 사무실이었지만 젊은 학생들이 들끓었고 상기 된 얼굴, 얼굴들이 꽤기만은 넘쳐 흘렀다. 이튿날 유세장까지 들려 격려운동까지 한 우리 일행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총선은 적어도 부산에서만 YS가 이끄는 통일민주당의 압승했지만 유일하게 대우 형만이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고 말았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다. 물론 상대가 워낙 재력가였다 부산에 연고가 튼튼한 분이라 고전은 예상했지만 의외로 선전하여, 선거 기간이 며칠만 더 있었다라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아쉬워 들 했다. 하지만 역사란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 후 YS가 JP와 함께 당을 해체하고 민자당으로 통합 흡수 될 때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보스인 YS에 단기필마로 반기를 들고 성명을 발표하고는 탈당, 정치 일선에서 물러서고 말았다. 그 때 나는 아연 실색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바로 그 순간부터 그가 미워졌다. 그의 ‘현명하지 못한 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애정은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서서히 그로부터 멀어져 갔고 내 스스로 그로부터 비켜서 있었다. 그가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그 자체마저도 비겁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는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다.

그가 꿈꾸던 정치적 유토피아는 천상의 세계가 아니라 저자 거리나 세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그가 몰랐을 리 없다. 대리만족을 바랐던 나 같은 속물들이나 그를 따랐

던 많은 후배들의 순수한 정을 몰랐을 리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무나도 그의 순수한 마음, 인간으로서의 그가 간직한 ‘순수’ 그 자체, 그의 순수함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유독 외로움을 타는 그가 문득문득 부산과 서울의 지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보다 훨씬 멀었던 것으로 느꼈을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미쳤을 때, 비로소 나는 참담하리 만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배운 거라고는 ‘정치는 바람이다’ 라는 이 한 마디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 바람은 결코 영원히 잠들지 않는다. 누군가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알맹이 없는 그 ‘허업’에 목숨 걸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정치인들은 바람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바람의 눈치를 본다. 언제부터 인가 바람이 천하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바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바람은 자유롭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바람처럼 자유로워졌다. 그런데 아쉬운 건 <간디>옹처럼 빛나던 그 순수의 눈빛을 볼 수가 없다. 검은 안경 너머로 빛나는 형안을 이제 볼 수가 없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축의 하나인 한국(조선)/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아침. 교단에 올라 자그마한 체구의 고2년생 이대우 선배가 카랑 카랑한 목소리로 읽었던 <타고르>의 이 시 구절이 아직도 내 귓전에 맴도는 것 같은데 그는 우리 곁을 떠났다.

대우 형! 이제 알 것 같군요. 유토피아는 바로 당신이 가고자 했던 그 길,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기를 바랐던 그 길이 아니라 당신의 소신대로 신념대로 살아간 그 길, 짧지만 정의로운 그 길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

故 이대우 님을 추모하면서



양 성 호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갑작스런 대우 군의 비보에 한동안 멍하니 쓰린 가슴을 안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본다.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쾌 소식을 뒤로하고, 병상에서 조차 내년 2·28 50주년 기념행사에 마음을 쓰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지금도 가슴 아픈 마음을 달래며 무정하게도 큰 영광의 빛도 못보고 세상을 하직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희망이었던 대우군을 그리며 추모하게 된 것을 무척 슬퍼하며 생전에 그가 원하던 2·28의 위상이 더욱 높아져 대구의 민주정신으로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2·28이 되기를 바라고 단합된 2·28을 원하며 고인의 영전에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바치고 싶은 심정이다.

자유당의 부정부패와 독재는 1950년대 후반 들어 극성을 부리며 아무도 그에 항거하지 못하는 암울한 그때 우리는 어린 학생신분으로 국가의 정치는 약간 인식할 따름 그냥 학업에 매진 하여야할 고등학교 2학년생 때였다.

1960. 2. 28. 일요일 대구수성천변의 야당유세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인 데도 고등학생들을 등교하게 하였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정부의 불법적으로 선거개입을 비판하는 시위를 일으켰다. 이를 주도한 정부 당국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당시 경북고등 학생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우리 친구 고 이대우 군은 전부터

용의 주도면밀한 계획으로(대구시내 8개 고교 연합)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학생시위를 계획 주도하였다.

우리는 그날 뭘 할 지도 모르고 일요일 등교해서 어수선한 교실에 전령을 보내 전교생 모두를 운동장에 집합시키고 단정한 경북고 교복과 모자를 쓰고 비장한 각오로 조희 교단에 올라선 학생회 간부 안효영 군과 고이대우군, 부위원장인 고이대우군은 오늘 일요일등교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함과 동시 지체없이 폭발적으로 쉼 없이 2·28선언문을 그 카랑카랑한 사자후로 토해내었다.

★ 인류 역사 이래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고,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디 그 어느 역사책 속에 끼어 있었던가?

오늘은 바야흐로 주위의 공장 연기를 날리지 않고 六日동안 갖가지 삶에 허덕이다 모이고 모인 피로를 풀 날이요, 내일의 삶을 위해 투쟁을 위해 그 정리를 하는 신성한 휴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의 휴일마저 빼앗길 운명에 처해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루의 휴일을 설 권리가 있다. 이것은 억지의 말도 아니고 꾸민 말도 아니고 인간의 근세 몇 천년동안 쫓 계속해서 내려온 관습이요, 인간이 생존해 나가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위해 만든 휴일을 빼앗기리. 우리는 피로에 쓰러져 죽어야만하나, 생각해볼지어다.

우리는 배움에 불타는 신성한 각오와 장차 동아를 짊어지고 나갈 꾀꾀한 역군이요, 사회악에 물들지 않은 백합같이 순결한 청춘이며, 학도이다.

우리 百萬학도는 지금 이 시각에도 타골의 詩를 잊지 않고 있다.

『그 촛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큰 꿈을 안고 자라나가는 우리가 현 성인사회의 정치 놀음에 일체 관계할 리도 만무하고 학문 습득에 시달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러나 이번 일을 정치에 관계없이 주위 사회에 자극 받지 않는 책 냄새 땀 냄새

새 촛불 꺼뜨리게 앓은 순결한 이성으로서 우리의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일장의 쫓기를 하려한다.

百萬學徒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치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처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 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릴 학도요, 조국을 괴뢰가 짓밟으려 하면 조국의 수호신으로 가버릴 학도이다.

이 민족애의 조국애의 피가 끓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 주려는가?

우리는 끝까지 일치단결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

대우 군의 피 끓는 민주에 대한 절규의 사자후가 끝나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학원을 정치도구로 이용하지마라” 등 구호를 외치며 모두가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러 나가자 라는 함성과 함께 두 주먹 불끈 쥐었으며~~~가슴은 뛰었다.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은 부당한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울분을 폭발하여 최후의 순간 까지 투쟁할 것을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순간적으로 교문을 박차고 달려 나갔다. 마치 노도 같아 제지하는 선생님들도 속수무책이었다. 계속 구호를 외치며 뛰어 삼덕우체국을 통과하고 중앙로 매일신문사 앞에 잠깐 멈춰 구호를 더 크게 외친 후, 경북도청사(지금 중앙공원)에 집결 시위는 절정에 이르고 계속 구호를 외쳤다.

“독재타파 일요등교 왜 말인가” “도지사는 나오라, 사과하라” “학생을 선거도구로 사용하지마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등

격양된 젊은 학생들의 피는 끓었고, 정의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때 후 부터 경찰은 진압 명령을 받고 학생들을 해산시키려 하였다. 우리학생들은 다시 공평동을 거쳐 동쪽 도지사 관사로 달려가며 시위는 계속되었다. 몇몇 학생은 구타당하며 경찰

차에 실려 중부경찰서와 남대구경찰서로 끌려갔다. (이광웅, 류재춘, 이상정 군 등 수십 명)

좁은 길에서 경찰과 맞서며 부상을 입은 학생과 강제 해산을 당한 학생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골목으로 남의 집으로 모자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가슴 두근거리며 뛰며 가정집 등에 숨었다.

오후 해질 무렵까지 피해 다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너무 큰일을 한 것 같아 가슴 조이며 숨어 있듯 하며 그날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라디오에서 미국 발 워싱턴 뉴스방송, 한국의 소리뉴스에서 한국 대구고교생 학생시위가 일요 등교로 인한 당국의 처사에 대한 항의하는 학생데모가 일어났다는 보도가 아나운서의 쟁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나는 우리의 정의로운 일이 세계가 알고 보도해주니 이제 우리 신변엔 큰일이 없겠구나하고 안도하였다.

누가 뭐래도 우리 모두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난 순수한 정의가, 불의에 민주적으로 항거 하는 외침으로 승화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대구매일신문은 우리의 의거를 대서특필하여 독재타도의 기선을 잡고, 여론을 주도해오며 우리의 대변자로 우뚝 서게 되어 안도 하였으며 세계 언론들은 이제 한국에도 민주주의의 장미가 필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보도 하고 있었다.

1960년 2월 28일 이날의 의거야 말로 순수한 양심의 발로였고 독재정권에 대한 위대한 도전 이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초석 발효를 놓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불인 불소시계는 그날 이후 3월 15일 마산사태로 불길이 번져갔다.

민심과 여론은 불길을 따라 드세졌으며 얼마 가지 않아 4월 19일 민주혁명이 완성되며 독재 타도의 장이 내려진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 드라마틱한 사건인가? 50여일 만에 독재정권타도!! 란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일으켰으며 그 주도인물이 자랑스러운 고 이대우님이었다 .

이 자랑스러운 일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당시 너무 어린 학생이라 그 후 대구 2·

28은 묻혀 버렸다. 그 후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발족으로 많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내년 2010년이면 2·28민주화운동 50주년이다. 반세기가 흐른 오늘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 50주년 기념행사를 보지도 못하고 병상에서 걱정만 하다가 그는 갔다.

안타까운 일이나 하느님의 섭리로 보기엔 너무 안타깝고 애석하다.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느님의 그 뜻을~~~

한국의 민주화의 효시는 1960년 2월 28일 12시 55분 대구경북고등학교운동장에 모인 600여 명의 학생과 그 앞에선 선구자 고 이대우군의 그 불의와 민주화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용의주도한 실행이 없었다면 그렇게 빨리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는가 묻고 싶다.

50여 일 만에, 2·28의 불소시계로 인하여~~~~

우리의 2·28 민주를 향한 의거는, 역사적인 일제시대의 3·1운동독립만세사건 이나 유관순 열사의 독립투쟁사건과 안중근의사, 윤봉길의사 같은 용기는 우리민족의 끈끈한 정의와 양심의 발로와 나라사랑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는 워낙 심한 독재시대라 감히 나서 우리를 변호하거나 도와줄 사회상은 아니었고 먼저 나서서 말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자칫하면 빨갱이로 몰려 갈 판인 공포의 독재시대이었다.

그런 사회 상황에 민심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며 민주당의 정·부통령 선거의 서막이 올라 있었다.

시대적 사명감에 입각한 선구자적 행동은 감히 아무도 그 뜻을 굽히게 하지는 못할 지어다.

우리는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룩한 이 위대한 업적을 더 승화시키고자 고 대우님은 일생동안 노심초사 하며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경향 각지의 동문들과 선후배를 만나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하며 무한히 자기를 낮추면서 민주화를 기획하고 선포한 효시의 산 증인으로 겸손하게 교수직에 충실하며 부산대학교에서 교수 정년퇴직하고 죽을 때까지 2·28민주운동에 대한 강한 애착은 너무나 컸고 평생을

2·28민주운동의 위상을 위한 생각으로 보냈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모르는 바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떠나 멀리에서 세상을 구원하였듯이 대우님은 그야말로 고향 대구를 떠나 부산에서 삶과 죽어서 서울수유리 민주성역 국립4·19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야말로 감사할 따름이다. 역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판정해주니까 말이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고향의 친구들이여!

대우님은 지상에서 이제 갔다.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안식처 하늘나라로 갔다.

2·28민주운동의 기수, 영원한 삶을 위해 그 기수를 우리에게 주고 갔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대구 2·28민주운동정신의 거룩하고 숭고한 뜻의 승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그것이 어렵겠지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지금 현재 올바른 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며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 그 위상을 찾는 데 지혜를 모우고 최선을 다해야 고인의 높은 뜻을 위한 길인 것이다.

대구2·28민주화 운동을 대구의 정신으로 승화 계승하기 위한 초석은 이제 다져져 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고인이 못다 이룬 꿈이 우리와 우리 대구시민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이 가을에 말없이 보낸 님을 그리며 눈시울 붉게 눈물이 고입니다.

아직 할 일은 많은데 하면서 걱정하는 노심초사는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치단결하여 우리 모두의 영광을 위해 대구의 2·28 민주화운동이 하루 빨리 민주의 반석위에 올려 지도록 법 개정 절차 등 제반 문제들이 잘 풀려 나가, 안심하고 영민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위해 고인의 영전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대우님 잘 계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안심하세요. 님이 못다 이룬 것 우리가 할 것이요.

그 카랑카랑한 사자후가 들리는 듯하다. 걱정하지마라. 내가 있잖아~~~
갑자기 가슴이 시원해지는 후련함이 님에 대한 사모곡인가~~~
우리 모두의 전당 2·28민주운동 기념관 건립을 꿈꾸며, 우리는 언제나 보고 싶은
님을 추모합니다.~~~
천상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서 우리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길 빌
어요.~~~



1960. 2. 28. 당시 공평동에서 스크럼을 짜고 경찰에 대치하여 돌진하고 있다. 그 후 경찰제지로 강제 해산되었다.(매일신문 사진) 이제 고인이 된 친구들도 보인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2·28 대구학생의거를 회상하며...



윤 봉 흥
(당시 대구고 2학년)

내 나이 어느덧 68세, 50년전 고등학교시절을 회상하니 내 가슴은 설레고 새삼 감회가 새롭다. 그리고 그때 1960년 2월 28일 당시의 모습이 떠오르며 일말의 흥분과 함께 조용한 웃음이 절로 번짐을 느끼겠다.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영구집권을 위한 선거부정에 항거하면서 남문시장 네거리를 성난 호랑이처럼 달리던 더벅머리 학생들의 노도와 같이 질주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떠오른다.

1960년 2월 28일

해방된 지 15년, 세계에 유례없는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이후 10년, 전쟁으로 인해 폐허로 변한 국토, 국민들은 헐벗고 하루끼니도 해결하기에 벅찬 시절

이었으나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이러한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의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하고 있었던 당시, 독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최악의 상태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권력욕에 미쳐버린 정치인들은 모든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부와 권세를 영원토록 보장해 줄 이승만 독재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1960년 2월 28일은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의 대구 수성천변유세가 예정되어 있었던 날이었다. 특히,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의 야당 유세장 참석을 막기 위하여 각 학교에(경북고교는 단체 영화관람, 대

구고교는 단체로 토끼사냥을 위하여 라는 핑계 등) 등교지시를 하는 등 전무후무한 일들이 저질러졌고, 이에 통분한 학생들은 부패한 독재정권의 무지막지한 횡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 평소 자주 어울리던 대구고, 경북고 학우들 몇몇이 모여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2월 27일 저녁, 평소 자주 모였던 친구 이대우 군의 이모 집에서 손진홍, 장주효, 최용호, 이대우, 나 등 8~9명이 모여 대책을 의논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옛 성현들의 가르침과 학교 교육에서 배운 진리대로 이승만 독재정권과 독재정치가 저지르는 온갖 불의와 부정부패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기로 결의를 하였다. 젊음과 양심을 갈구하던 학우들의 마음이 하나되어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뿌듯해지고 새삼 가슴이 벅차올랐으며, 가슴 한 구석의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한층 더 용기가 충만 되어 모두의 얼굴에 비장한 각오와 결의에 찬 기운이 돌았다.

우리들은 2월 28일 정오를 기하여 각자의 학교 교정에서 불의에 항거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오후 1시에 대구고, 경북고 양교 학생들이 반월당에 집결하여 도청으로 행진하는 데모를 하기에

합의하였다.

손진홍, 장주효, 나 우리 셋은 27일 밤에 각 학급의 반장, 대의원, 대대장들에게 내일(28일) 거사에 대하여 동참할 것을 권유, 동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이들 학우들도 이심전심으로 이승만정권의 부정에 항거하는 데모를 함께 할 것에 흔쾌히 동의하고, 당시 통행금지시간인 밤 12시에 경북고 이대우 군 이모 집에 모여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일(28일) 각자의 학교 교장에서 선언문만 낭독하고 데모는 취소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재합의하고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짐하였다. 결의 후 한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얘기를 하니, 한 친구가 장가(결혼)를 못가서 좀 억울하다는 말을 하였다. 친구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를 알면서도 모두들 말없이 쓴웃음을 지었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와 선거부정을 타도하자는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우리들은 우리가 거사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보다 현실을 더 잘 알고 있는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나이 어린 우리 고등학생들이 앞장서서 데모를 하면 전국에서 부정에 항거하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일어설 것

이라는 예견을 하면서, 만일의 경우 거사가 실패하면 강원도 깊은 산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평생을 살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마음다짐을 하였다.

다음날(28일) 아침, 우리는 학우들 중 서예를 잘 하는 박대근 군에게 선언문의 정서를 부탁하고 학교에 오니 선언문 정서를 담당한 박 군의 부모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거사한다는 것을 아시고 정서한 선언문을 불태워버렸다는 연락을 받고 망연해 하면서도 거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 뜻밖에 오전 10시경에 경북고는 선언문만 낭독하고 데모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소문이 들려와, 손진홍 군이 나에게 경북고로 가서 예정대로 거사를 반드시 진행토록 설득하라는 특명(?)을 받고 바로 영선못-경북여고-경북고로 이어지는 소위 직선코스로 나는 듯이 달려가 경북고 윤종명 군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빨리 이대우 군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이대우 군을 만나고 보니 경북고는 선언문만 읽느냐, 데모도 같이 하느냐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아 이대우군에게 우리 대구고는 데모하기 위하여 지금 교문을 나섰다고 이야기하면서 약속대로 거사를 진행하자고 권유하였다. 이대우 군이 알겠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논의하는 곳으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아

경북고 학생들이 합성을 지르며 노도와 같이 교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나는 즉각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하여 대구고로 돌아가 처음 결의대로 경북고가 데모를 하기 위하여 교문을 나섰다고 손진홍 군에게 알린 후 우리 학교도 즉시 행동에 나서자고 말했다.

우리는 학생들의 데모를 앞뒤로 독려하고 이끌면서 “까만 토끼(순경) 잡으러 가자”고 외치면서 대구고와 경북고 양교가 집합하기로 약속한 반월당으로 달려갔다. 대구고, 경북고 양교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중에 나는 반월당과 남문시장 사이에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경찰차에 태워져 남대구경찰서에 도착하니 붙잡혀 온 학생들이 대구고, 경북고 합쳐서 약 100여 명 정도가 되어보였다. 곧 이어 상급생은 앞쪽에 하급생을 뒤쪽으로 앉혀 놓고는 한 사람씩 심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은 참나무로 만든 몽둥이(길이 약 120cm, 넓이 약 7cm, 두께 약 15cm)로 학생들을 때리기부터 하면서 심문을 하는 행패를 부렸다. 내 앞의 한 교우를 때리면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더니 “뒤에 가서 기다려라”고 하면서 발로 차 뒤로 보내고 나를 불러내더니 나에게 심문을 시작하였다. “주동자(주모자)는 누구며, 데모는 왜 하느냐”고 묻기에 “일요일에 강제로 등교를 하라니까 데모를 하였으

며, 주모자(주동자)는 모른다.”고 하니
까 참나무 몽둥이로 어깨, 등, 허벅지,
정강이 등을 마구잡이로 때리면서, 심문
하고 때리기를 반복하였다.

학생들이 심문받는 중에, 학생들이 격
정되어 경찰서 복도까지 쫓아와 계시던
대구고 재직 중이시던 박태구 체육선생
님의 뺨을 형사가 마구 때리는 것을 목
격한 우리 학생들은 눈에서 불이 쏟아질
정도로 펄펄 뛰었으며 “세상에 이럴 수
는 없다.”고 절치부심(切齒腐心)하였다.

경찰이 주모자를 밝히는 데 실패하게
되어 가는 중 나의 옆에서 매를 맞으면
서 심문받던 경북고 한 학생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는지 자기를 데모 주
동자라고 적어 놓으라고 단말마(斷末
魔)적으로 내뱉었다.

얼마 쯤 지난 후 주동자(주모자)를 찾
았다고 하더니 다른 학생에 대한 심문이
모두 끝났다고 하면서 오후 5시 30분경
우리들을 훈방 조치하였다. 경찰서 밖에
서 걱정을 하시면서 초조하게 기다리시
던 선생님들로부터 당부하시는 말씀을
듣고 각자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집에 오자 어머니께서 나의 어깨와 등
을 보시더니 “세상에 어린 학생들을 어
떻게 이토록 처참하게 때릴 수 있느냐”
고 통분해 하시면서 눈물을 쏟으셨다.
또한 이런 와중에도 나중에 너가 커서
나이가 들게 되면 담이 생기면 안 된다

고 하시면서 들깨를 찢어 막걸리에 타
서 주시는 것을 어머니의 정성을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억지로 한 사발을 다
마시고 잠을 청했다.

2·28데모 이후 정국은 우리가 처음
예견한 대로 각계각층의 데모가 전국으
로 들불처럼 번지고, 드디어 마산의 3·
15의거를 거쳐 마침내 4·19혁명으로
이어져 드디어 4월 26일 이승만 독재정
권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2·28 대구 학생의거 50주년을 앞두
고 당시를 회고해 보니, 학구에만 열중
하여야 할 고등학생들이 양심과 숨겨진
진리의 발현으로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
난 대구의 2·28학생의거는 4·19혁명
의 도화선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자유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청사에 길이 빛
날 역사적 사건임을 자부하면서 50주년
을 맞이하게 될 감회가 더욱 더 새롭다.

필을 놓으려는 찰나 뇌성(雷聲)이 전
신을 엄습하기에 정신을 추스려 그간에
유명(幽明)을 달리한 학우들의 영령(英
靈)을 추모하며 2·28데모를 이끌었던
故 獨峯 孫晉洪 大兄과李大雨 大兄의 冥
福을 삼가 비오며 왕생극락(往生極樂)하
여 영생(永生)하시기를 빕니다. ▮

석송령을 바라보며



사진 류정필 작가 제공



이 은 재

사방으로 드리운 주렴 같은 빗속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우두커니 노송을 바라본다. 수많은 세월을 덕지덕지 쌓아 올린 거대한 푸른 탑이다. 중세를 지나 근대를 거쳐 오면서 층층이 쌓은 세월이 우뚝하게 푸르다. 태백 준령이 곧추세운 뉘트로 살았던가. 지금도 기가 펄펄 살아 있다. 앞으로 천 년 세월을 더 산다 해도 끄떡없으리라.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합세하여 도전한다 해도 단판 승부로 끝내 버릴 기상이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나무 꼭대기까지 시선을 밀어 올린다. 눈길이 십여 미터쯤 이르자,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나의 기는 여지없이 죽고 만다.

은하계를 돌고 돌아 육백 수십 년, 하고많은 세월 동안 만고풍상 다 겪었을 터이지만, 말 없는 노송은 나뭇가지 상한 곳 하나 없이 젊다.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왔으면 저토록 숭고하면서도 의연해 보일까. 빗물 머금은 솔잎들이 함초롬히 푸르다.

세월 따라 길게 드리운 가지들을 석평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받쳐 놓았다. 노송의 영역 안으로 준비하게 늘어선 반침목들, 어느 새 그들은 이곳을 지키는 근위병이 되어

준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석평 마을 사람들은 노송을 영적인 존재로 섬긴다. 석평 마을의 이 노송이 인간 세상과 소통하는 별난 소나무란 것을 그 후에 알게 되었다.

가는 세월 다 잊고 늘 푸르게 살아가는 노송의 속내가 무척 의연하다. 노송은 석평 마을 인심에 이끌려 하늘 길 가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했던가. 아니면 낙동강 천삼백 리 길 가는 녹수를 못 잊어서 저토록 목을 뽑고 서 있었던가. 장부는 원래 입이 무거운 법이지만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 보나마나 녹수를 향한 일편단심 일 게 뻔하다. 녹수 또한 떠나는 발길이 천 근인가 만 근인가 한없이 무거워만 보인다. 하회 마을 돌아갈 때 뒤돌아보고, 회룡포 돌아갈 제 또 돌아보는 저 녹수를 어이 잊으랴. 노송은 백설이 만견곤할 제도 독야청청할밖에. 저러다가 노송이 천명을 다하고 돌아가려면 이 강산이 다 마르고 닳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할 경우가 있다. 산업 사회로의 전환점에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낯선 타관 객지로 떠나왔던 사람들은 대체로 실향민 아닌 실향민으로 살아간다. 노송은 언제부터 이곳에 붙박여 살게 되었을까. 그동안 내린 뿌리가 너무 깊고, 번은 가지도 너무 많아 이제는 오가지도 못하는 몸이 되었다.

노송은 본디 반송의 씨로 이 세상에 나왔다. 어쩌다 예천 땅 석평 마을에 뿌리내리고 육백여 년 동안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노송에게 전연 예기치 못한 시간이 찾아왔다. 꿈인 듯 생시인 듯, 뜻밖에 원하지도 않은 인간의 재물이 들어온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열린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없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고 했다. 인생의 마무리 부분에 무게를 두곤 할 말일 게다. 석평 마을에서 여러 대를 살아오던 이수목 씨가 전 재산을 노송에게 물려준 거였다. 드디어 재물로 인한 인간과 식물과의 소통이 시작된 것이다. 석평 마을 사람들도 놀라고, 하늘도 놀랄 일이었다. 이수목 씨는 사람보다 노송이 더 미더웠던 모양이다.

이수목 씨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아들이 사라진 것이다. 바람처럼 떠나 버린 것이다. 전국 곳곳 찾아보았지만 흔적이 없었다. 꿈길 속을 헤매어도 그 모습 간데없다. “허사로다. 허사로다. 모두가 허사로다.” 이 소리는 이수목 씨가 가슴 깊은 곳에서 뱉어 낸 유일한 탄식이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삶의 황혼기에 다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 의지하고픈 피붙이가 그리웠다. 하지만 그리던 자식 녀름 소식조차 없었다. 가진 것만큼 마음도 무겁다는 것을 늘그막에 와서야 깨달았다. 자신의 재산 문제를 끌어안고 며

칠 동안 끙끙거리도 그 해법은 풀리지 않았다. 장고 끝에 이수목 씨는 문전옥답 육천 육백 평을 노송에게 물려주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노송은 이름도 얻게 되었다. 성은 석(石) 이름은 송령(松靈)이다. 그 후부터 석송령은 재산세를 내는 납세자가 된 것이다. 휴게소 상가 임대업으로 거둬들이는 째짤한 수입으로 장학 사업도 벌인다. 석송령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지만 줄부처럼 거들먹거리지도 않는다. 석송령은 마을의 안녕을 지켜 주는 동신목으로서의 직분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이제 석송령은 석평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을 안겨 주는 나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석평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나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 일체를 대어 준다. 그래도 석송령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신문 지상에 이름 석 자 올린 일도 없다. 그도 숭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없는 파고를 넘고 또 넘어왔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무사했다. 그것은 어찌면 석송령이 나무로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지녔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믿는다.

2008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 무더웠다. 불현듯 찾아온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몇 달 동안 국민들과 정치권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불만의 목소리는 별 때처럼 웅웅거렸고, 밤마다 서울 도심은 촛불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청와대 앞 컨테이너로 쌓아 놓은 철옹성을 바라보며 소통의 사회를 꿈꾸어 보았다. 한 그루 노송에 불과한 석송령도 인간 세상과 소통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서는 소통 불능의 옹고집을 앓고 있는 것일까. 이 중병에 대한 처방전을 석송령은 알고나 있을까. 한 번 물어보고 싶다. ▮

이 은 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영남수필문학회, 슬미문학회 회원,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 영호남수필문학회 사무처장 역임
수필가, 도서출판 그루 대표



▲ 석 송 령

▶작가 류 정 필

- 한국사진작가협회회원
- 사진작가협회 환경보전 분과위원
- 사광회 회원
- 매일사진동우회 회원



달 빛




공 영 구

무더운 여름 한밤
잠 깨어 짜증부리니
창 밖 지나가며 싱긋 웃는 달

달빛이 너무 많아 외롭다
먼지 잡음 가득한
이름만 덩그런 허우대로
남 속이는 거짓도 없다

인사청탁 비리 없다고
공정한 수사 진행되었다고
내 의지가 왜곡되었다고
믿어 달라는 허우대들



깨진 거울 조각을 지나
낡은 풍금의 건반을 지나 달빛은
이 한밤 잠 안자고 칼날 세우며
강 따라 주춤주춤 흘러간다

공 영 구

- 경북 영천 출생
- 시인
- <심상> 신인상
- 2009 시집 <오늘하루> 외 2권
- 현재 :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
대구 경신고등학교 교사

2·28과의 만남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4월 2·28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처음엔 2·28기념사업회가 생소했었다. 평소 2·28공원은 익숙했지만 사업회가 있으리라곤 생각해보지 않았다. 2·28이 대구학생들이 일으킨 민주운동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구에 살면서 심지어 운동이 시작되었던 도처에 있으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역사에 대해 무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반성해 본다. 하지만 이것은 2·28의 역사와 접할 기회가 흔치 않고 그에 대해 교육해주는 사람도 없었기에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 곳에 일하게 되면서 나쁜 아니라 많은 대구 시민들도 2·28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때서야 2·28에 대해 알고 싶다고 정보를 요청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셨고, 친구들에게 2·28기념사업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니 2·28공원에서 일하냐고 되묻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직 우리 대구 시민들 나아가 전 국민이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2·28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첫째, 시민들이 2·28대구민주운동과 친해지게 하기. 다시 말하자면 평소에 2·28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2·28민주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할 정도이다. 그만큼 접할 기회가 없다는 것인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 아 현
영남대학교 3학년

1960년 2월 28일 불의에 항거하자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뛰었던 그 길을 자전거로 또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자전거로가 불가능하다면 산책길이라도 조성해 이런 경로로 시위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표시만 해놓더라도 그 길목을 지나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2·28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2·28대구민주운동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대구의 특색 있는 볼거리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2·28공원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8공원이 처음 조성되었을 때 이 공원은 2월 28일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공원이름을 2·28공원이라고 지었을까 궁금했었다. 이전에 2·28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원에 2·28홍보관을 조그맣게 조성해서 기존에 2·28대구민주운동을 알고 있던 이들에게는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모르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2·28에 대해 알리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2·28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기. 1960년 억압받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데모했던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알았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민주주의의 시초가 이 사건 때문이라고 공유하는 것이 지금의 자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28기념사업회와 인연을 맺고 일을 하면서 그때의 추억이었던 분들이 힘을 합쳐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 비록 그들의 모습은 변했지만 1960년 그 뜨거웠던 열정이 느껴질 때가 있다. 49년 전 그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려 능동적인 움직임의 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뭔가 가슴이 뜨끈해 질 때도 있었다. 지금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권리를 찾는 것이 당연한 때이지만 그때의 억압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무릅쓴 그들이 몇 있었다. 그때는 독재정권에 대항하였고 지금은 2·28대구민주운동을 알리기 위해 힘쓰는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네들은 조금 더 2·28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제 사업회 일은 끝마치게 되었지만 2·28기념사업회에 가입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하루 빨리 전 국민이 2·28대구민주운동이 민주화운동의 효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

햇불지 35호 편집회의



지난 9월 7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2·28 햇불 35호 편집회의(위원장 김약수)를 개최하고 자료수집과 편집기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 제5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한 - 2·28 각분과위원장 회의

2009. 9. 16.(금) 오전 11시 2·28제5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한 분과위원장 회의가



대구시 남산동 2·28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안인욱 공동의장을 비롯한 역대의장단, 분과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유명을 달리한 이대우 이사의 명복을 비는 추모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회의는 각분과위원회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의토론하고 8차 포럼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28 일지

- 7. 7. 고교1·2·4지구 현장장학협의회 참석, 2·28현황 설명(사무총장)
- 7. 15. 대구광역시 동부, 서부, 남부, 달성교육청 교육장 예방 업무 협의 (안인옥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7. 16.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장, 교육연수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방문 (안인옥 공동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7. 17.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 예방 업무 협의 (안인옥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8. 17. 달성고등학교, 경덕여자고등학교 방문(안인옥 공동의장)
- 8. 18.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방문(안인옥 공동의장)
- 8. 19. 상원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방문(안인옥 공동의장)
- 8. 19. 경북과학대학 평생교육원 방문 2·28현황 설명(사무총장)
- 8. 20.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 분향 (안인옥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8. 20. 정호재 이사 모친상 문상(안인옥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8. 21.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시지고등학교, 청구고등학교 방문(안인옥 공동의장)
- 8. 25. 대구공고 총동문회 임시총회 참석 2·28현황 설명(사무총장)
- 8. 31. 대구공고 교장 및 동문회 예방 업무 협의(사무총장)
- 9. 3. 정시식 이사 이해봉 국회의원 업무 협의(서울)
- 9. 14. 이대우 이사 별세 문상(안인옥 의장 서울삼성병원)
- 10. 10. 이명규 국회의원과 업무 협의(안인옥 공동의장)
- 10. 11. 안인옥 공동의장 이해봉 국회의원 면담
- 10. 15.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윤원) 일행 2·28기념관 건립 장소 대구시 남산동 현지 답사 설명회(안인옥 공동의장)



2009년 2월 28일 제49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참석 후 이대우 이사와의 마지막 촬영



나한테 꼭 맞는 통합보험, 마침내 삼성생명에서 찾았다!

온가족 통합보장까지!

퍼펙트 통합보험 I종(CI형)



1종

실속형 종합보장까지!

퍼펙트 통합보험 II종(장기형)



2종

종신보험에 통합가능까지!

퍼펙트 통합보험 III종(종신형)



3종

생명보험법 제141조 제2호(2009.2.14.제2009.6.4)

대한민국 통합보험의 대표브랜드

(무)퓨처30+ **퍼펙트** 통합보험

온가족의 보장을 단 하나의 보험으로!

퍼펙트 통합보험 1, 2종에 이어 3종 출시로 맞춤 설계가 더 퍼펙트해졌습니다
(총 28개 특약으로 가족맞춤설계)

- 퍼펙트 통합보험 I종(CI형) 중대질병, 장기요양에 의료실손까지 하나로!
- 퍼펙트 통합보험 II종(장기형) 합리적 보험료로 정기보험에 장기요양, 의료실손까지 하나로!
- 퍼펙트 통합보험 III종(종신형) 종신보험과 통합보험의 장점을 하나로!

*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 보로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충합니다.



지금, 삼성생명 FC를 만나 '통합보장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대표문의전화 ☎ 1588-3114)



국민연금공단 보험 2종 가입 | 연금보험 1종 보험 2종 가입 | 연금보험 2종 보험 2종 가입 | 연금보험 3종 보험 2종 가입 | 연금보험 4종 보험 2종 가입

삼성생명

SAMSUNG



NAVER *검색하는 즐거움*

이동현한의원 *은 초보부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710-종-5786호

“소아·청소년의
성장장애, 비만, 알레르기-
이동현한의원과
상의하십시오.”



이동현 한의원

소아, 청소년의 성장과 비만 치료에 대한 다양한 소아질환 관련서적을
집필한 이동현 원장과 함께 자녀들의 성장장애와 비만, 알레르기 등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 보십시오



※한의학박사 이동현원장의 주요저서

이동현원장 Profile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 취득
•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근무 • 前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

진료과목 한방소아과 / 침구과 / 한방내과 / 한방부인과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30 ~ 오후 6:00 일요일 : 매주 휴진

토요일 : 오전 9:30 ~ 오후 3:00 공휴일 : 정오 12시까지 **전화확인요함**

진료상담 053)423-5811(代) Fax 053M23-5843





Dream Great Bridge 대구은행

지역과 금융을 연결하는 큰 다리가 되겠습니다



- 2007 아시아 최우수 경영기업상 수상 (아시아머니 선정)
- 2009 고객감동경영대상 수상 (2년연속)

- 2007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산업자원부)
- 2009 감사대상 수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감독원)